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0.12

## 30일 영신수련을 마치고...

유기 서원자 이해영 마리아고례띠.FMM

유기서원자6년차 프로그램 중 하나로써 저는 10월 1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순천 예수회영성센터로 30일 영신수련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의 따뜻한 가을볏에 맑은 산속 공기, 곧 곱게 물들어갈 무성한 나무들이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강의와 개별면담, 그리고 5번의 개인기도로 이루어진 이 30일 동안 하느님을 진하게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한 저는 첫날부터 열의와 의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일 주어지는 텍스트(교재,성경)를 가지고 깊은 침묵과 잠심으로 들어갔습니다. 텍스트 안에서 내가 만난 하느님(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기도 안에서 나의 내적 움직임이 어떠한지를 면담 때 나누었습니다. 첫 며칠은 지도신부님이 저의 기도를 가만히 듣고만 계셔서 기도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때



"나를  
더  
사랑하여 주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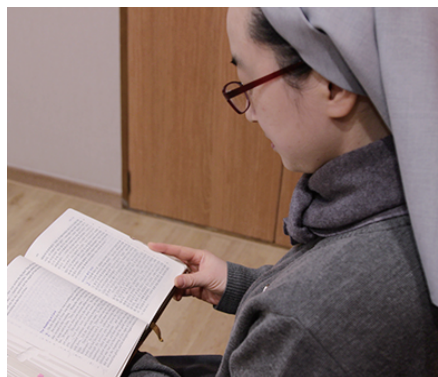
편안한가요? 어떤가요?”하고 신부님께서 물으셨고 저는 당연히 편안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기도 때마다 제가 경직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잘 하고 싶고 하느님을 깊게 만나고픈 마음,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말들이 있었고 매 기도 때마다 청해야 하는 은총들이 있었는데 그 은총들을 다 받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자유로운 성령의 활동을 막고 있기에 나의 기도가 생각에만 머물러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열의, 의욕으로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빈 마음으로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내려놓아야 하느님의 만남이 시작된다는 것어요. 은총도 그분께서 주시만 만큼 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제게 새로웠던 것은 성경의 예수님 이야기 안에 내가 들어가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그 분 말씀을 듣고 함께 하는 이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느껴지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적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에서 가만히 머무르는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기 위해 이렇게 정성스럽게 기도한 적이 있었던가. 어려운 날에는 하루종일 그 분 생각만 하였고 잠들기 전 꿈에서도 그분처럼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잤습니다.

기도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라자로의 무덤에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돌을 치워라.” 하셨고 이내 돌이 굴러졌습니다. 저는 나라는 동굴 안에서 빛을 향해 나왔지만 제대로 볼 수가 없었고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



"돌을 치워라."



기에 너무도 갑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묶인 것을 풀어주어 움직이게 하여라.” 내가 동굴에서 나왔기에 빛이 아닌 동굴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묶인 것에서 풀려났기에 묶여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능하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 중 마음에 와 닿았던 예수님은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 후 다시금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슬픔과 좌절 속에 있는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전처럼 내가 누구라고 설명하거나 가르치지 않으셨고 그냥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알아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은 답답해하거나 실망하거나 의문을 품지도 않으셨습니다. 평화롭게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에게 평소처럼 다가갔고 부르셨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니 더 이상 슬픔, 좌절, 고통, 허무, 두려움이 아닌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아,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데 저는 저의 감정, 일에 빠져 예수님을 못 알아보기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저를 기다려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늘, 한결같ियो.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행동에, 말에 제 마음이 불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속에서 “나를 더 사랑하여 주렴.” 라고 들려왔습니다. 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 안녕, 그리고 또 안녕! Goodbye, and Hello!

이영주 스텔라.FMM

12월!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요?

그리스도교에서 ‘마지막’은 ‘종말’을 떠올립니다. 예전에는 종말론이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간혹 특정한 종파에서 왜곡하기도 했지요. 날짜를 따져서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온다고 공표하거나, 휴거가 일어나는데 모두 흰 옷을 입고 준비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일을 예견하기도 했습니다만 모두 빛나갔습니다.

오늘날 종말론은 ‘희망’과 연결됩니다. 독일 개신교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1926~ )은 그의 저서 「희망의 신학」에서 종말론은 신학의 꼬트머리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합니다. ‘밀림의

성자'로 알려진 알버트 슈바이처(1875-1965)는 뛰어난 음악가이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심지어 예수님의 생애와 업적을 종말론적 관점에서 다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말이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연결되는 것은, 바로 '하느님 나라', 즉 '하느님의 다스림'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이집트, 바빌론, 로마 등 강대국들 틈에 끼여 많은 고통을 받았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들은 언젠가 하느님께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자기네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이 처절한 믿음과 희망이 그들을 받쳐주었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무렵, 이 희망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포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세상 마지막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루가 17장 21절 참조). 즉, 세상 끝날에 가서야 '완성'될 터이지만,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하느님 나라는 바로 하느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고, 내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고, 율법만 고수하지 않고 그 정신을 실천하며, 허례허식이 아니라 참된 마음으로 하느님을 섬기는 나라. 한마디로 사랑과 나눔,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 세상'에 종말을 고하고 싶습니다.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하는 세상,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나 몰라라 하는 세상, 갑질과 억울함이 일상이 되고, 폭력과 경쟁으로 내몰린 세상, 이 지구는 어떻게 되든 말든 우선 자원을 뽑아 쓰고 보자는 인간중심적인 세상. 이제 이러한 세상에 종말을 고하며 “안녕!”이라고 합시다. “굿바이 goodbye~~”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새로운 세상,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를 일구어 갑시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이웃의 고통을 돌아볼 줄 아는 세상, 당장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자연도 생각할 줄 아는 세상, 작은 선행이나마 실천함으로써 삶을 더 깊이 있게 가꾸는 세상, 미담과 덕행이 저녁 뉴스를 도배하는 세상, 인간과 자연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 되어 하느님을 찬미하는 세상. 이러한 세상을 가꾸고 맞이하며 “안녕!”이라고 합시다. “헬로우 hello~~”

코로나 사태로 뒤죽박죽이 된 2020년. 행여나, 행여나 하면서 버텨 온 시간들... 그동안 우리가 마지막이길 바라며 희망하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고통을 끝내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만을 바랐던 것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그러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지만, 서로를 살피며 하느님 나라를 넓혀가야 합니다. 이제, 그 나라를 꿈꾸며 외쳐봅니다.

“절망이여, 안녕 goodbye! 희망이여, 안녕 hello!”



자동 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sp@hanmail.net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11월 1일 ~ 11월 30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재단	강경아	강미현	강승완	강신연	강연호	강지우(왕효준)	고대완	
고월순	고유연	고재영	고지영	고희숙	공해용	구영희	구옹회 권순익 권영오	
금부동	금창호	김경미	김광기	김광자	김귀선	미리암 김귀선	스테파니아 김남기	
김덕칠	김도상	김도영	김동일	김동현	루가 김두현	김두환(김철형)	김득현 김미리	
김미애자	김민규	김병수	케냐 김상규	김상률	김상연	김상태	김셋별 김성용 김성원	
김성환	김수경	김수미	김수자	세실리아	김순철	김시운	김시준 김애자 김연진	
김영덕	프란치스코	김영옥	김영운	김영재(허갑수)	김영주	김영희	김옥림 김옥주	
김용덕	김용수	김용식	김용자(윤소라)	김용주	김용준	김원진	김유정 김인희	
김재식	김재욱	김정숙	마리아	김정웅(김명신)	김정임	엘리사벳	김정주 김종연	
김정혜(정구충)	김주옥	김준희	김지혜	김진미	김진숙	알데군다	김진식 김진옥	
김춘자	루갈다	김춘자	안나 김태욱	김해자	김현숙(최지명)	김혜겸	김혜영 김호생	
김홍양	김희재	나숙희	나정순	남봉원	노미경	노병덕(권정희)	노봉근 노석심	
노연주	노정애	류순자	명영희	문성식	민정웅	박노성	박라희(임영희) 박민선	
박병옥	박병주	박성근	박성길(정은아)	박성준	다니엘	박성준	도미니꼬 박성현	
박수경	박수인	박순옥	박양순	박연애	박용숙	데레사	박원서 박윤실 박은정	
박은희	박인호	박재용	박정선	박정순(임현서)	박정식	박정연	박찬순 박태분 박현희	
박홍권	박화자	박희수	박효정	박희순	방상만	사도요한	방웅 방진 배운숙	
배인호	배장열	배철희	백미자	백성대	변복자	변태식	삼성동성가장	나눔회 서덕순
서춘자	서태진	서현수	석상령	성상모	성영주	성옥이	소재록 손순덕 손윤희	
손은주	손정례	송비아	송순이	송승윤(김영임)	송영희	송정애	송채영 송혜경	
신승일	신주화	신희식	심귀선	아가맘2호	안미령	안양금	양미경 양영자 양윤석	
양종한	오숙자	오영희	오옥형(최민귀)	우복명	우영희	윤남동	빈첸시오 원ENG	
원세경	유미경	유병춘	유복희	유시연	유영재	유은분	유은정 유춘성 육동배	
유희숙	프란치스코	유혜정	헤레나	윤경숙	윤규현	윤명희	윤문섭 윤미숙	데보라
윤보미	윤봉수	윤순자	윤순희	윤정희	윤한희	윤현숙	이갑수 이강모 이경로	
이관훈	이광진(홍기원)	이광희	이귀순	이기향	이기혁	이동세	이동준 이동현 이명혜	
이명순(이선영)	이미자	이민희	이복순	이상문	이성엽	이성혜(유주영)	이연신	
이연실	이연재	이영혜	이옥자	이용길	이윤신	이은주	이인숙(경동메디칼) 이인숙로사	
이정란(최윤)	이정숙	데레사	이정숙	마리아	이정숙	수산나	이정원 이정준	
이정하	이정희	소피아	이준우	이지인	프란체스카	이창석	이태금 이필단 이향남	
이해일	이현순	이혜숙	이홍식	인용석	인후작	은형제	임도원(임영희) 임승욱	
임주리	임지원	임호	장민정	장세옥	장영문	장영순	장영표 장우영 장원태	
장현아	전순자	전영관	전충엽	정경원	정경필	정명국	정미영 정복순 정부강	
정석영	정성민	정소영	정수인	정숙자	정영숙	정옥희	정인순 정재영 정진명	
정재훈(정지호)	정진숙	정향숙	젼마	정혜경	정혜숙	플로라	정희파 키스탄 조남섭	
조상위	조석금	조수미	조재호	조정희	조조식	조혜영	조화숙 조희공 조희무	
주)가나	스틸진성자	진숙인	진신아	최규범	최금영	최금영	최두진 최성순 최숙규	
최순애	최연희	최옥자	최원단	최원철	최인석	최일순	최지은 최향미 최혜정	
최휘선	추상식	추수옥	케냐 추영숙	추종현	태계남	파키스탄	박진 하옥경 한기훈	
한순옥	한영미	한옥선	한은희	한인숙	한진경	한효정(권오현)	허정자 현경미	
홍말숙	홍명숙	홍미자	홍민선	홍민희	홍성란	홍성란	홍세아 홍수봉 홍승희	
홍은숙	홍익기	황경희	황달수	황인복	황정숙			